

자멸의 길을 걷는 사료가격 인상

취 재 부

C사료 가격 5% 인상

지난 5월 22일, 국내 사료업체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C사료(합작회사)가 원료(대두박)사료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의 인상을 이유로 하여 시중에 출하되어 있는 C배합사료의 가격을 일제히 5%선에서 인상시켰다.

이에 따라 각 사료공장들도 차츰 가격문제들을 들먹이고 있으나 행정당국에서는 사료가격의 인상은 절대로 허가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C사료의 가격인상은 기정사실로 되어 현재 실시중이고 이에 따라 다른 합작회사들도 가격의 인상을 고려중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사료회사들은 당분간 사료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등 분분한 가운데 양계인들의 사정은 어떨까?

계속하여 생산원가를 하회만 하고 있던 계란값이 겨우 고개를 쳐들고 살아 나다가 싶었더니 부로일터가격은 160원선(kg당)을 1개월째 계속하고 있다. 아마 이러한 경우를 두고 옆친테 덜 친다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양계인이 더 이상 사료값을 올린다면 양계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문을 해온다.

더 이상 계란값도 올라갈 가망도 없고 닭고기 값도 생산원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사료값이 오르는가?

그러면 도대체 왜 사료가격이 오르는가? 분

명히 지난 년초에 한국가금협회에서 옥수수가격이 산지(產地)에서 인하되었으므로 배합사료 가격도 인하시켜야 한다고 정부당국과 각 사료관계단체에 얘기했을 때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입을 모아 「옥수수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사료값을 내리고, 오른다고 해서 또 올리면 너무 안정성이 없어진다. 금년은 사료가격을 안정시켜서 가격의 변동이 없도록 하겠다」고 장담을 하였다. 그 장담이 불과 5개월도 가지 못하고 또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사료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자.

「원료사료의 가격인상때문이다. 대두박과 어분이 작년에 대두박 kg당 평균 45원씩에 수입하여 사용하던 것을 D회사에서 국내에 대두박공장을 세운후 독점공급을 하고 있으며 농림부에서도 대두박의 수입은 금지시키고 있으며 국내 공급이 아주 모자랄때에만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국내 공급이 아주 모자랄때에만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더우기 국내 공급이 원활치 않을뿐 아니라 가격도 작년에는 49.50원선에서 공급하던 것을 금년들어 가격이 결정되지 못한채 75원(kg당)을 예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공급받고 있다. 또 대두박이 없다면 어분으로 단백질수준을 맞춰줘야 하는데 어분도 품질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 회사(C사료)의 경우는 대두박의 의존도가 높으니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만일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사료의 품질이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가격을 5%씩 올리는 C사료측의 답변이다.

즉 양계인을 위하여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양계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품질을 저하시킬 수 없으니 가격을 올려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계인이 비싼 사료를 쓰면서도 수지를 맞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과연 경제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해봤는지, C회사 자체의 경제성이 아니고 양계인의 경제성을 말하다.

물론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목적을 생각하면 너무 억지스러운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기업의 사회성과 공익성을 생각하면 그리고 양계인의 도산은 곧 사료회사 자신의 도산과 결부되는 것인만큼 억지스러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과연 양계인을 위하여 가격을 올릴만한 품질은 낮추지 않겠다는 회사가 왜 양계인들의 경제성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비싸면 우리 사료를 쓰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답변하리라. 그렇다 쓰지 않으면 그만이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C사료의 사료시장내에서의 시장점거율(market share)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료들에게 주는 영향과 더구나 합작회사들의 태도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6월중에는 가격인상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P,H,K 사료등의 합작 투자회사들이 조심스럽게 C사료의 동정을 살피고 있지 않는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나 약간 시선을 높여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 보기로 하자.

우선 이번 사료가격을 인상하게 된 C사료의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대두박이며 기타 어분, 그리고 국내산 박류들의 가격인상등이 큰 문제이다.

과거 외국에서 kg당 45원씩에 수입하던 대두박은 국내의 1개회사(D 유량)에 독점공급케 함으로서 수급에 원할을 기할 수 없을 뿐아니라 가격도 앙등시켜 놓은 것이다. (D회사가 주장하는 생산원가=대두박 1kg 생산에 73원)

외화유출의 방지도 중요하고 국내 개발가능한 사료자원의 보호 육성도 당연한 일이지만 100만 양계인과 사료업계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1개 독점업체를 보호 육성시킨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독점업체의 횡포는 어떠한 이유에서이건 막아야 한다.

더구나 양계인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농민 전체를 위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행정당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대두박가격은 국내산 박류들의 가격인상을 부채질하였고 어분의 공급도 대두박과의 대체때문에 더욱 품귀현상을 빚어 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어분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제시장에서 어분의 구매 자체가 매우 어려워졌고 가격도 높아졌다고 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 이 현상이 금년에만 국한할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생산지에서 구매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 어분의 확보는 금년 뿐아니라 앞으로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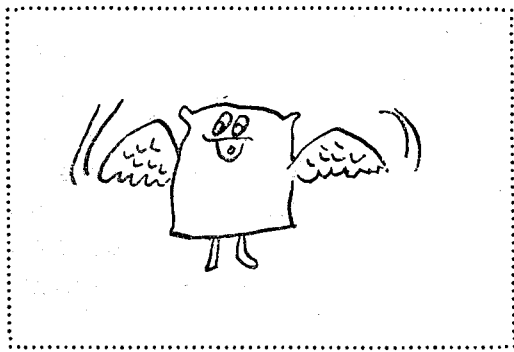
또 이번에 도입되는 옥수수중 일부는 다른 도입분보다 톤당 15불이 비싸지리라 한다. 원산지에서의 조급한 구매와 운임때문인 모양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더 높은 가격의 원료를 구입하던지 하는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그 부담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 양계인이 모든 부담을 하여야 된다. 왜 중간 생산자들의 잘못이나 차질을 우리 양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가? 왜 당국에서는 사료업계의 민간단체들과 협조하여 원료 확보의 안전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가?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이번 C사료의 가격인상은 사료업계내의 많은 병폐중의 일부를 들어내보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병폐들이 치료되지 않는 한 양계인과 사료업계는 자멸의 길로 달릴 수 밖에 없다.

국내의 사료업체들은 당국과 협조하여, 독점업체의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중용하여야 할 것이다.



정말 살아 나갈 길은 없는가?

앞에서 열거한 사실들 때문에 사료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양계업계의 도산——바로 그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양계인이 도산하고 몇몇 대기업의 양계인들이 살아 남을 수 있다면 양계수수가 줄어 들고 생산물의 가격은 높아질 것이고 영세 양계인은 도태되고 기업 양계인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의 현상은 양계의 기업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수많은 영세 양계인의 생사가 달린 생업을 좌우하는 문제인 만큼, 쉽게 수궁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또 되어서도 안된다.

또 정부가 축산진흥 4개년계획등으로 심혈을 기울여 육성하여 온 축산업중 대종을 이룬 양계업이 도산한다면 양계산물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의 단백질식품을 공급할 축산물이 또 어디 있는가?

그러나 양계인이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다. 그것은 생산물의 가격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양계인이 자체 생산 조절을 한다든지 (거의 불가능한 얘기이지만) 공동 판매에 의한 불매(不買)운동 등으로 인하여 해결될 단계는 이미 지났다.

생산물의 판매 및 유통문제는 당국의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어 축산물 전체에 대한 마케팅과 양계산물에 대한 정책적인 보호 육성이 선행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정책과 아울러 양계업체 자체에서 단결된 힘이 독립된 유통기구에 의한 연구와 개발된 시장조직에 의하여 생산물의 유통이 이루어질 때에만 양계인들의 살길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발등의 불은 어떻게 끄나?

그러나 축산물 유통조직의 강화에 의한 난판 타개의 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는하나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사료가격 인상은 현재의 내, 외부적인 여건하에서는 양계인에게 받아들여 질 수 없다.

국내의 사료업계는 힘을 합하여 원료사료 구입의 난판을 타개하여야 한다. 동시에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각 사료 공장들이 자축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양계 경기의 침체는 양계인 자신들만의 희생을 감수하여서 해결될 수는 없다. 관계업체 전체의 존망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전체의 희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는 힘들다.

이번의 위기는 우리 자신들이 과감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양계인과 부화, 사료 등의 관계업체들이 자멸할 수밖에 없는 고비이다. 또한 당국에서도 모처럼 쌓아올린 축산중흥의 가장 큰 밑바탕이 되는 양계업이 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방의 도박들에게서 전 양계인의 생사를 가름하는 사료가격의 인상 문제를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각 사료공장측의 근시안적인 안목과 설득에 의하여 가격사정에 있어서 축산국으로서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는 판단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농림당국의 방침대로 대두박 가격을 종전가격으로 고수 C사료의 가격은 시급히 종전가격과 같이 인하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양계인과 사료업계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